

헌신. 이 말로써 저는 옥균이 제게 얼마나 의미 있는 사람이었는지, 지난 이년 반 동안 나누었던 토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억을 영원히 제 마음 속에 새깁니다.

그와 나는 학문적 관심이 비슷했기에 우리는 매 학기 같은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업 안팎에서 우리는 여러 주제에 대해서 서로의 관점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키웠습니다. 옥균은 아주 지적이고 매우 어려운 개념들을 자신의 말로 명료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이게 바로 내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야!” 라고 속으로 외치는 제 자신을 자주 발견하였습니다. 옥균은 익살스러운 말들로 저를 웃게 만들었음은 물론, 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성찰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하게끔 격려해 주었으며, 저도 학생들과 동료 영어 교사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옥균은 항상 비판적 교수법이 세상 사람을 비판으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해내고 일구어내는 교육관임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그의 깊은 통찰력과 격려가 없었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비판적 교수법을 반영한 ESL 영어 수업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저의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글은 옥균의 날카로운 유머, 비판적인 생각, 고결한 재능,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머를 가질 수 있는 그의 여유에 바치고 싶습니다.

DEDICATION TO OK KYOON YOO

With this commentary, I would like to express how much Ok Kyoon Yoo meant to me and how valuable the dialogues we had for the past two and a half years still are and will be forever in my mind.

Our similar academic interests lead us to take the same courses every semester. Through our discussions in and out of class, we shared our perspectives on different issues. He was very intelligent and able to articulate complex ideas in his own words. When he was talking I would catch myself thinking, “That’s exactly what I wanted to say!” He made me laugh with his jokes, made me reflective and critical about what I was doing, and made me hopeful about what we can do to make a difference in the lives

of our students and fellow teachers. He always reminded me that critical pedagogy is not to make people pessimistic about the world, but hopeful about the future. Without his insights and encouragement, I would not have been able to develop the course and research project I am currently working on using critical pedagogy. My paper in this issue is dedicated to Ok Kyoon for his sharp wit, critical mind, pure talent and ability to keep a sense of humor in spite of it all.

Takayuki Okazaki